

"합병안 일사천리 통과"...'100조 에너지 공룡' 출범[SK이노·E&S 합병①]

등록 2024.08.27 15:09:25 | 수정 2024.08.27 18:44:52



[서울=뉴시스]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. (사진 = SK) 2024.03.27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박지혁 기자 = SK이노베이션과 SK E&S의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자산 100조원, 매출 88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.

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결과, 참석주주의 85.75% 찬성률로 합병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

이번 합병 건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, 발행 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.

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SK이노베이션의 최대주주인 SK(㈜)를 비롯해 대다수 주주가 찬성했다.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이번 합병에 찬성을 권고하면서 외국인 주주들의 95%가 합병 찬성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날 임시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. 아시아-태평양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.

지난해 매출을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이 77조2885억원으로 SK E&S(11조1672억원)의 7배 수준이다. 하지만 영업이익은 양

사 차이가 크지 않다. SK이노베이션이 1조9039억원, SK E&S가 1조3317억원 정도다.

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, 에너지·화학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, 전기차 시장 캐즘(일시적 수요 둔화) 등 급변하는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.

향후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, 배터리사업에 더해 SK E&S의 액화천연가스(LNG),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결합돼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요구에 대응한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(Energy Solution Package)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.



[서울=뉴스시스]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(사진 = SK이노베이션 제공) 2024.08.27. photo@newsis.com

이번 합병으로 안정적인 재무 및 손익 구조 구축도 가능해진다.

LNG와 전력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SK E&S와 합병을 통해 회사 수익의 안정성이 높아지고, 큰 폭 상승된 합병회사의 수익력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.

특히 2021년 출범 이후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경우, 원소재 확보 경쟁력 및 사업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.

SK이노베이션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만 2030년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(EBITDA) 2조20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며, 전체 EBITDA는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“회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될 이번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”이라며 “더불어 합병 완료 이후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fgl75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